'기필코 이긴다' 대한민국과 한국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16일 벌어지는 E-1 챔피언십 한일전에 나서는 선수단이 13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필드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가볍게 달리기를 하며 최근 2경기를 치르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있다. 도쿄(일본) | 뉴시스

"한일전 앞두고 하도 긴장돼 화장실 4~5번씩 들락날락"

최영일 축구협 부회장의 한일전 추억

왕년 미우라 족쇄맨…축구행정가로 변신
E-1 챔피언십 선수단장으로 대표팀 지휘
"일반경기 부담이 100이면 한일전은 300"

최영일 부회장

1990년대 축구 한일전을 기억하는 올드팬들에겐 최영일(51)이라는 이름은 낯설지가 않다. 상대 에이스를 철저하게 마크해 숨통을 조이는 철벽수비를 펼친 이가 바로 최영일이었다. 그의 진가가 발휘된 무대는 한일전이었다. 특히 축구팬들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는 1997년 도쿄대첩(1998프랑스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당시 최영일은 일본의 대표 공격수 미우라 가즈요시(50) 전담마크맨으로 투입돼 그를 꽁꽁 묶었다.

덕분에 한국은 적지에서 통쾌한 2-1 역전승을 거두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했다. 20년 전 철벽 수비수는 이제 50대 중년이 돼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모교 동아대에서 사령탑을 맡았던 최 부회장은 이제 행정가로서 축구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첫 발은 현재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다. 이번 대회에서 단장을 맡아 남녀대표팀을 앞에서 이끌고 있다.

13일 현지에서 만난 최 부회장은 예상대로 눈앞으로 다가온 한일전 이야기부터 꺼내들었다. "긴장감이 흐른다.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다. 다른 어떤 경기와도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토요일 저녁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아직까지도 추억이 새록새록한 그 순간. 1998프랑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한일전에서 한국의 수비수 최영일(오른쪽)이 일본의 간판공격수 미우라 가즈요시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한일전의 추억을 묻자 이야기 한 보따리가 나왔다. "그때는 태극마크를 향한 애절함이 있었다. 특히 한일전은 그 부담감이 더했다. 경기를 앞두고는 화장실을 4~5번씩 가기도 했다. 적지에서 치르는 한일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 관중이 우리를 압도한다. 정신력을 다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옛날엔 한일전에서 지면 대한해협을 건너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 서른에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일까. 자부심이 짙게 묻어나보였다.

"물론 이러한 부담감은 대표팀으로서 안고 가야할 몫이다. 일반경기의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한일전은 300이다. 이 같은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일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수비수였던 나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 하나로 그라운드에 나갔다."

그러나 추억은 어디까지나 추억일 뿐. 20년이 흐른 지금은 정신력으로 경기 전체를 풀어나갈 수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일본의 전력을 묻자 최 부회장은 "해볼만하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대회 상대국 단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한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더라. 이는 곧 경기에서도 심리적으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로선 현장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아야한다. 한 번 매듭이 잘못 꼬이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를 회상하며 열변을 토하던 그도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런데 차마 하지 못했다.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웃음)."

도쿄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새 감독으로 새 판 짜는 챌린지

안산·부천 제외 7개 팀 사령탑 교체
'클래식 승격' 치열한 생존 경쟁 예고

2017시즌을 마친 프로축구 K리그의 감독 교체 바람이 거세다. 특히 챌린지(2부)의 새판 짜기는 가히 태풍급이다. 시즌이 종료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새 감독 선임 소식이 들려온다. 챌린지 10개 팀 중 7개 팀 사령탑이 바뀌었다. 살아남은 감독은 겨우 3명이다.

클래식(1부)으로 승격하는 경남FC는 김종부 감독과 재계약했다. 올해 창단한 안산 그리너스 이흥실 감독은 탈 꼴찌를 하며(9위) 내년 시즌을 노린다. 5위 부천FC 정갑석 감독도 비록 승강 준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구단의 신임을 받았다.

역대 사례를 보면 갈수록 감독 교체가 잦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챌린지가 시작된 2013년 8개팀 가운데 2개팀 수장이 교체된 것을 비롯해 2014년 3개팀, 2015년 4개팀이 사령탑의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에는 11개팀 가운데 8개팀, 그리고 올해 10개 팀 7개팀이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 그야말로 칼바람의 현장이다.

시즌 중 물러난 조덕제 감독의 수원FC가 김대의(43) 감독을 선임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7위로 시즌을 마친 FC안양는 김종필 감독 대신 고정운(51) 감독을 영입했다. 최하위의 대전시티즌은 현역 시절 축구천재 소리를 듣던 고종수(39) 감독을 영입했다.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한 아산 무궁화와 8위의 서울 이랜드도 각각 박동혁(38) 감독과 인창수(45)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두 팀은 안정성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내부 승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전 고종수 감독

부산 최윤겸 감독

4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했던 성남FC는 박경훈 감독을 경질하고 남기일(43) 감독을 영입했고, 부산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조진호 감독의 후임으로 최윤겸(55) 감독을 선택했다.

새 감독 영입의 패턴은 크게 패기와 관록으로 나눌 수 있다. 1978년생 고종수 감독과 1979년생 박동혁 감독을 영입한 대전과 아산은 30대의 젊은 패기를 높이 샀다. 경험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강인한 도전 정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과 성남은 클래식에서의 경험에 방점을 찍었다. 최윤겸 감독은 강원FC, 남기일 감독은 광주FC에서 이미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이외에도 김대의 감독이나 고정운 감독은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낸 스타플레이어 출신인데다 경험도 풍부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챌린지의 목표는 확실하다. 클래식 승격이다. 감독들은 승격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실패할 경우 1년짜리 감독도 각오해야한다. 승부세계의 냉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챌린지 무대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우승은 멀어졌지만… 다시 뛰는 윤덕여호

중국과 최종전 앞두고 유종의 미 다짐

우승의 꿈은 지나갔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윤덕여(56)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국가대표팀이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선다. 2연패의 아픔을 뒤로한 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막판 담금질에 나섰다.

윤덕여호는 일본 지바에서 벌어지는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아직 1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8일 일본전에선 치열한 공방전 끝에 2-3으로 졌고, 11일 북한전에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12년 만의 우승도 함께 좌절됐다.

아쉬운 쪽은 역시 선수단이다. 해외파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동아시아 무대에서 내심 정상탈환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윤덕여 감독은 11일 북한전이 끝난 뒤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잠시 만나 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수들 역시 경기종료 직후 아쉬운 표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좌절할 수는 없다. 대표팀은 12일 휴식을 취한 뒤 13일부터 마지막 전체훈련에 돌입했다. 이들이 다시 힘을 내야하는 이유는 하나다. 3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할 수 없다는 각오다. 잊고 싶은 악몽도 떠오른다. 2008년 동아시아 선수권(E-1 챔피언십 전신)에서 대표팀은 중국과 일본, 북한에 차례로 패해 3연패의 수모를 당했다. 역대 5차례 E-1 챔피언십에서 대표팀이 3연패를 기록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윤덕여호로서는 당시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대표팀 관계자는 "사실 북한전 패배 이후 조금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12일 저녁부터 선수들이 원래 표정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선수들 역시 3전 전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할 수 없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귀띔했다.

도쿄 | 고봉준 기자

유소년훈련장에 축구기념관까지…전북 왕조의 100년 대계

육성 인프라 완성·전통 계승의 장 마련
백승권 단장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다"

전북현대는 명실상부한 21세기 초반 K리그 최고의 팀이 됐다. 2000년대 들어 2차례 아시아 정상(2006·2016)에 등극했고, 5차례(2009·2011·2014·2015·2017) K리그를 평정했다. 물론 오늘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는다. "팀을 만드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고 전북 최강희 감독은 항상 얘기한다.

주변의 다른 팀들이 대책 없이 허리띠만 졸라맬 때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꾸준히 효과를 내고 있는 배경이다. 전북은 여기서 더 나가 이제는 내일도 바라본다. 창단 24주년을 맞이할 2018년 1월 구단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유소년 축구타운 건립이 드디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에 천연잔디구장 1개면, 인조잔디구장 1개면이 추가로 조성된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유소년축구타운의) 출발단계로 그라운드부터 마련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드디어 1월 첫 삽을 뜰 것"이라고 13일 설명했다.

현재 클럽하우스에는 천연잔디구장 2개면, 지붕이 딸린 인조잔디구장 1/2개면이 마련돼 있으나 대개는 1·2군 성인 선수단을 위해 사용됐다. 쟁쟁한 대선배들의 훈련 스케줄이 없는 날에나 유소년 선수들은 이곳 잔디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성될 그라운드는 오직 유소년들을 위해 마련된다.

▲K리그 우승 ▲클럽하우스 완성 ▲유소년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10년 주기(2006~2015)의 1차 비전 프로젝트에 이어 전북이 세운 5년 주기(2016~2020)의 2차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생력 강화다.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의 꿈나무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소년 축구타운은 그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화수분처럼 등장하는 차세대 예비 스타들은 유·무형의 구단 자산이다. 전용훈련장에 이어 15세 이하 및 18세 이하 선수단(코칭스태프 포함)을 최대 100여명까지 수용할 유소년 클럽하우스마저 추가되면 사실상 유소년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장착은 완성단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북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북현대 축구기념관(가칭)'이 클럽하우스 부지에 건립된다. 구단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일종의 역사박물관이다. 축구에 죽고 못 사는 유럽과 남미에서 특정 클럽들을 위한 기념관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나 K리그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이미 팬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사랑받는 전북의 클럽하우스가 축구 기념관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셈이다.

백 단장은 "계획수립은 끝났고,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다. (기념관) 부지확보 등 이것저것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서두르지 않겠지만 빈틈없이 철저히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설계와 역사까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전북의 2017년 겨울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